

# 무용전공 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태도에 미치는 영향

유 영 란\*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과거에 비해 현대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면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화 되었고, 그 한편으로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미디어 및 다중 매체의 발전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의 삶도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동시에 수반하면서 속도를 맞추어 변화되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시대적 급변의 흐름 속에서 문화 예술계도 급변의 상황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 중 무용계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요즘은 한국 무용에도 이런 경향들이 퍼지면서 빠른 음악에 빠른 몸놀림, 꺾고 돌리고하는 등의 춤사위의 현란함이 유행처럼 많아져, 예전의 한국적 전통 춤사위의 맵시는 점점 약화되고 마치 지루한 것처럼 여기면서 흥미를 잃어가는 추세이다.

\* 주저자 및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강사, yy311@hanmail.net

지금의 순수 무용은 현란한 대중음악과 비주얼(visual)한 대중 무용에 눌려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순수 무용은 과거의 사회, 문화적 상황과 전파 속도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고 현 시대의 사회적 현상과는 많이 다른 이질적인 면을 가지고 과도기적 현상을 보이고 있기에, 순수 무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의 힘 보다는 다가올 미래의 상황에 대한 불안함에 무용계의 리더들 보다는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는 무용전공 학생들이 결정해야 할 인생의 중요한 진로의 선택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무용을 전공한 학생이든, 비전공 학생이든 대학 생활을 하고 추후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이며, 학생들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다. 이때, 무용전공 학생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 전공의 길이 정해져 있었고 무용과 연관된 각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 고민하고 노력을 해 온 것을 보면, 일반 학생들 보다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실성이 좀 더 강할 수 있을 것이라 예견되어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용전공 대학생은 13-14살의 어린나이에 전공을 정하여 조기에 전문인으로 양성되어져 무용 관련 분야에 종사함으로써(나희진, 2005)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인 정서적, 심리적 안정된 생활과 확실성에 대한 긍정적인 자신감들이 왜 점점 결여 되어지는 현상들을 보일까? 협의적 사고로 보면 일단 우리나라의 실정에 대학 졸업 후 전문 무용인을 수용할 만한 전문 무용단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진로 경쟁의 치열함이 매우 커 앞에서 언급된 여러 장점들에 비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에 졸업을 앞둔 대학생의 경우 자신의 진로 결정은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어떻게 꾸려 나갈 지에 대한 중요한 선택이며 결정이므로 진로 결정 과정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의 고찰은 중요하다 하겠다.

사실, 여기에서 불확실성이란 사건에 대한 불완전한 인식과 분류의 상태로 위협이나 기회가 평가 될 때까지는 중립적인 경험이다(Mished, 1988). 하지만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걱정해야 할 수많은 이유들을 쉽고 다양하게 찾으며, 긍정적인 것에 대해 불확실하게 인식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정확하게 아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한다. 즉, 어느 쪽으로든 확실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확실해 질 때까지 끊임없이 걱정하게 된다는 것이다(Dugas, Buhr & Ladouceur, 2004). 이처럼

불확실성을 위협적이며 좌절과 스트레스, 무능력으로 이끄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Lachance, Ladouceur & Dugas, 1999). 따라서 불확실성에 대해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애매하고, 불확실한 자극도 과대평가하며 현재 상황이 아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된다(정미영, 2009).

한편,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미래에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서, 그 미래는 아무도 예기치 못하며 성패의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은 크게만 느낄 것이다. Wanberg와 Muchinsky(1992)가 언급 했듯이, 진로결정이라는 개념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확실한 결정을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왜 그렇지 못한가를 규명하고자 하는데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무용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세부적으로 전공이 나누어져 나아가야 할 무용의 방향이 정해진다. 그렇기에 미래에 대한 자기 자신의 계획 및 목표가 다른 비전공 학생들 보다 빨리 결정이 되면서 학교 진학을 하기 때문에 진로와 미래에 대한 포부가 좀 더 높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대학에 진학해서 모든 이에게 결과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무용학과 내의 존재의식과 목표의식의 부재로 정체성 상실의 고민과 지도교수 및 선배와의 올바른 관계의 미 확립에서 오는 구성원 간의 이해 부족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맞게 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방향 조절의 실패로 좌절을 겪게 되는데(이창섭, 채지원, 이명휘, 2006), 여기서 오히려 무용전공 대학생이 비전공 대학생보다 진로 문제의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혼재로 더더욱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무용전공 대학생의 진로나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무용교사의 직업사회화 과정을 다룬 연구(박중길, 김계숙, 2003)와 무용을 전공하는 대학생의 진로탐색이나 진로결정과정에 실제로 진로결정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음을 확인해주는 연구(김은영, 2001; 손은령, 2001), 무용전공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화가 진로결정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장경아, 2003), 무용과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박중길, 2006), 무용전공을 희망하는 중,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요인의 관계를 다룬 연구(김은주, 2007) 무용전공대학생의 진로의식과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김명주, 2009), 대학 무

용전공자의 진로문제와 진로성숙의 관계를 다룬 연구(한선숙, 2009)를 제외하고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렇듯 무용전공 대학생의 사회적 현실은 대학 졸업 후 나아 갈 수 있는 진로의 방향이 한정되어 있고, 당사자들이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으로 긍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연구의 결여 때문에 직업 및 진로의 선택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결정해야 할 진로에 관한 인내력 부족은 과연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할 필요가 대두되는 것이다.

삶의 많은 측면이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감안 할 때 이러한 경향성을 지닌 사람은 일상의 많은 상황에 대한 인내력이 전반적으로 낮고 이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 경험이 잦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과거사회에 비해 원인을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증대된 사회이다. 불확실성의 증대는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증가시켰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자연과학 분야에서조차도 불확실성은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심리학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인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자 하는 심리학의 특성상 불확실성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당수 대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장래 희망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하기 보다는 학교 인지도와 시험점수 위주의 대학진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이 개인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면서도 전공과 적성간의 불일치와 불투명한 취업 전망 등의 이유로 인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진로 결정을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김선중, 2005). 이로 인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아 성취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진로 결정은 하지도 못 한 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불안 해 하면서 인내력 부족까지 나타났고, 이런 심리적 갈등 상황이 경기 침체의 경제적 상황과도 맞물려 전 사회적 문제로 발생되기에 이르렀다. 이 여파는 종합 문화예술인 무용계까지 파생되어 무용전공 학생들 자신의 진로와 인생 목표의 확실성이 결여되면서 생기는 갈등 양상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다.

이때, 무용전공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자기효능감이며, 자기효능감이란 주어

진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과정들을 얼마나 잘 조직하고 수행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며(Bandura, 1997),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 높을 수 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처를 하고(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8) 생활 만족도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박영신 외, 1999; Chartrand, Camp, & McFadden, 1992) 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 볼 때,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개인의 행동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낙관적인 신념을 소유하고 있으며, 동기를 저하시키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적응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용 전공 대학생의 가장 큰 고민으로 지적되고 있는 진로 결정과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간에 자아효능감이 얼마나 완충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무용전공대학생들의 불확실성에대한 인내력부족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무용전공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무용전공대학생들의 불확실성에대한 인내력부족은 진로결정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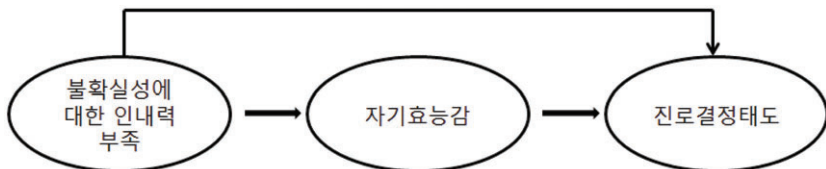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이 연구의 대상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용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무용학과 재학 중인 1-4학년 학생 226명으로 표집방법은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t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지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stration)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자가 207(91.6%)명, 남자가 18(8.0%)명이며, 학년은 대학교 4학년 38(16.8%)명, 대학교3학년 35(15.5%)명, 대학교 2학년 59(26.1%)명, 대학교 1학년 94(41.6%)명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한국무용 150(66.4%)명, 발레 33(14.6%)명, 현대 43(19.0%)명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1>와 같다.

표 1. 인구통계학적특성

특 성	구 분	사례수(명)	빈도(%)
성 별	남	19	8.4
	여	207	91.6
학 년	1학년	94	41.6
	2학년	59	26.1
	3학년	35	15.5
	4학년	38	16.8
전 공	한국	150	66.4
	현대	43	19.0
	발레	33	14.6

### 2. 측정도구 및 방법

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측정도구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모두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측정

www.kci.go.kr

도구를 확보한 후 전공분야의 전공자 4명의 회의를 통해 1차적으로 내용타당도를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하였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 자기효능감 그리고 진로 결정태도 모두 5단계 Likert척도로 구성하였다. 요인 추출모델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고 직교회전방식 중 베리맥스 방법을 사용하여 고유치가 1.0이상으로 추출되는 요인과 각 요인 부하량이 .40 이상인 문항만을 수용하였다.

첫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Freeston, Rheaume, Letare, Dugas 및 Ladouceur(1994)에 의해 개발된 자기보고형 검사로 최혜경(1997), 신경림(2005)이 사용한 설문을 이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모호한 상황에 대한 정서적, 행동적 반응, 불확실한 상황의 영향, 미래사건을 통제하려는 시도와 관련된 일요인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불확실한 상황을 못 견디는 성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는

표 2. 자기효능감에 대한 탐색적요인분석

요 인	1요인	2요인	3요인	공분산비	신뢰도
자기조절7	.646			.625	.740
자기조절6	.646			.636	
자기조절4	.619			.631	
자기조절1	.607			.494	
자기조절2	.603			.421	
자기조절5	.600			.393	
자기조절3	.586			.385	
자신감1		.789		.390	.713
자신감2		.788		.421	
자신감3		.668		.380	
자신감4		.645		.432	
과제난이도1			.736	.426	.583
과제난이도2			.719	.532	
과제난이도3			.598	.526	
과제난이도4			.484	.457	
고 유치	3.078	2.250	1.822		
변량(%)	20.517	15.001	12.147		
누적(%)	20.517	35.519	47.666		

.94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효능감 변수는 차정은(1997)이 개발하고 김아영(1997)이 사용한 설문을 이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문항 간 상관행렬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김아

표 3. 진로결정태도에 대한 탐색적요인분석

요 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공분산비	신뢰도
결정성4	.717					.637	.863
결정성2	.707					.776	
결정성3	.699					.503	
결정성1	.699					.536	
결정성6	.649					.527	
결정성9	.648					.668	
결정성5	.637					.618	
결정성8	.600					.616	
결정성7	.582					.516	
현실성3		.765				.468	.775
현실성2		.739				.533	
현실성4		.685				.516	
현실성1		.627				.507	
현실성5		.601				.722	
독립성4			.734			.592	.768
독립성3			.727			.512	
독립성5			.713			.506	
독립성1			.589			.637	
독립성2			.584			.634	
준비성2				.790		.534	.752
준비성3				.741		.574	
준비성1				.681		.607	
준비성4				.643		.581	
확신성2					.846	.448	.783
확신성3					.778	.541	
확신성1					.755	.411	
고유치	4.216	2.960	2.737	2.486	2.325		
변량(%)	16.215	11.383	10.525	9.562	8.943		
누적(%)	16.215	27.599	38.124	47.686	56.629		

영(1997)의 연구에서 사용된 이 척도는 총 24문항, 자기조절 효능감(12문항), 자신감(7문항), 과제난이도(5문항)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전조사를 통하여 자기조절 효능감(7문항), 자신감(4문항), 과제난이도(4항)등 총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진로결정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종철(1997)이 개발하고 김영희(2007)가 사용한 설문을 이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김영희(2007)의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총 39문항, 결정성 차원(8문항), 준비성 차원(11문항), 현실성 차원(5문항), 독립성 차원(9문항), 확신성 차원(6문항)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전조사를 통하여 결정성 차원(9문항), 준비성 차원(4문항), 현실성 차원(5문항), 독립성 차원(5문항), 확신성 차원(3문항)등 총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3. 자료처리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의 설문지는 2010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사전에 교육받은 조사원 2명과 함께 조사 대상지를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배포한 다음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집 한 전체표본 260부 중에서 240부를 회수하였고, 수집된 자료 중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14부의 표본을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킨 후 분석 가능한 자료 226부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최종자료를 가지고 SPSS WIN Ver.14.0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위하여 빈도분석과 측정도구의 구인타당도를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변인간의 영향력 검증을 위하여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통계처리의 유의수준은  $p < .05$ 로 검증하였다.

### III. 결 과

#### 1. 불확실성에대한 인내력 부족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태도간의 상관관계

불확실성에대한 인내력 부족, 자기효능감, 진로결정태도간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 4>와 같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불확실성에대한 인내력부족요인은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 효능감에 정적(+)  
인 상관을 보였으며, 자신감요인에서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과제난이도 요인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진로결정태도 하위요인인 결정성 차원, 현실성, 준비성, 독립성요인에 정적(+)  
인 상관을 보였으며, 확신성요인에서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인 자기조절 효능감에서는 진로결정태도 하위요인 중 준비성, 독립성 요인에 정적(+)  
인 상관을 보였으며, 결정성 차원, 현실성, 확신성요인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신감요인에서는 결정성 차원, 현실성요인에 정적(+)  
인 상관을 보였으며, 준비성, 독립성, 확신성 요인에서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과제난이도요인에서는 현실성요인에서 정적(+)  
인 상관을 보였으며, 결정성 차원, 준비성, 독립성, 확신성 요인에서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상관관계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 불확실성	1								
2. 자기조절	.265**	1							
3. 자신감	-.418**	.003	1						
4. 과제난이도	-.113	.180**	.200**	1					
5. 결정성차원	.418**	.018	-.343**	-.117	1				
6. 현실성	.348**	.045	-.235**	-.163*	.500**	1			
7. 준비성	.166*	.433**	-.021	.075	-.071	-.007	1		
8. 독립성	.154*	.434**	.023	-.013	-.034	-.002	.537**	1	
9. 확신성	.128	.051	.121	-.043	-.079	.144*	.012	.269**	1

\*p<.05, p\*\*<.01

## 2. 불확실성에대한 인내력 부족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무용전공대학생들의 불확실성에대한 인내력 부족 변인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불확실성에대한 인내력 부족 변인은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효능감에 유의한 분산을 예측하였다[F(3,222)=16.974, p<.001]. 구체적으로 보면, 자기조절 효능감( $\beta=.265$ , p<.001)분산의 7.0%를 설명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자신감요인에서도 유의한 분산을 예측하였다[F(3,222)=47.490, p<.001]. 구체적으로 보면, 자신감( $\beta=-.418$ , p<.001)분산의 17.5%를 설명됨을 알 수 있다. 과제난이도 에서는 [F(3,222)=2.880, p<.05]유의한 분산을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과제난이도 ( $\beta=-.113$ , p<.05)분산의 1.3%를 설명하고 있다. 즉, 불확실성에대한 인내력 부족은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불확실성에대한 인내력 부족과 자기효능감의 단순회귀분석 결과

준거변인	예측변인	R	R2	R2abj	F	Beta	t	p
자기조절	불확실성에	.265	.070	.066	16.974***	.265	4.117	.000***
자신감	대한	.418	.175	.171	47.490***	-.418	-6.891	.000***
과제난이도	인내력 부족	.113	.013	.008	2.880*	-.113	-1.697	.091*

\*p<.05, p\*\*\*<.001

## 3.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태도의 관계

무용전공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태도에 대한 예측 설명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 변인은 진로결정태도의 하위요인인 결정성 차원에[F(3,222)=10.211, p<.001]유의한 분산을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beta=-.331$ , p<.001)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전체 변량은 12.1%를 설명하고 있다. 현실성에서는 자신감( $\beta=-.208$ , p<.01)과 과제난이도( $\beta=-.134$ , p<.05)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의 전체 변량은 7.4%를 설명하고 있다[F(3,222)=5.914, p<.01]. 독립성에서는 자기조절( $\beta=.452$ , p<.001)과

표 6.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태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준거변인	예측변인	R	R2	R2abj	F	Beta	t	p
결정성차원	자기조절	.348	.121	.109	10.211***	.029	.459	.647
	자신감					-.331	-5.173	.000***
	과제난이도					-.056	-.856	.393
현실성	자기조절	.272	.074	.061	5.914**	.070	1.067	.287
	자신감					-.208	-3.159	.002**
	과제난이도					-.134	-1.999	.047*
독립성	자기조절	.446	.198	.188	18.324***	.452	7.398	.000***
	자신감					.042	.686	.493
	과제난이도					-.103	-1.659	.099*
준비성	자기조절	.433	.188	.177	17.099***	.433	7.029	.000***
	자신감					-.022	-.360	.719
	과제난이도					.001	.019	.985
확신성	자기조절	.153	.023	.010	1.769	.066	.971	.333
	자신감					.137	2.019	.045*
	과제난이도					-.082	-1.191	.235

\*p<.05, p\*\*<.01, p\*\*\*<.001

과제난이도( $\beta = -.103$ ,  $p < .05$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의 전체 변량은 19.8%를 설명하고 있다[F(3,222)=18.324,  $p < .001$ ]. 준비성에서는 자기조절( $\beta = .433$ ,  $p < .001$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의 전체 변량은 18.8%를 설명하고 있다[F(3,222)=17.099,  $p < .001$ ]. 확신성에서는 자신감( $\beta = .137$ ,  $p < .05$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들의 전체 변량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 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과 진로결정태도의 관계

무용전공대학생들의 불확실성에대한 인내력 부족 변인이 진로결정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서 보는바와 같이

표 7. 불확실성에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결정태도의 단순회귀분석 결과

준거변인	예측변인	R	R2	R2abj	F	Beta	t	p
결정성차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418	.175	.171	47.396***	.418	6.884	.000***
현실성		.348	.121	.117	30.870***	.348	5.556	.000***
독립성		.154	.024	.019	5.459*	.154	2.337	.020*
준비성		.166	.028	.023	6.348*	.166	2.520	.012*
확신성		.128	.016	.012	3.729*	.128	1.931	.055*

\* $p < .05$ , \*\* $p < .01$ , \*\*\* $p < .001$

불확실성에대한 인내력 부족 변인은 진로결정태도 하위요인인 결정성차원에 유의한 분산을 예측하였다[F(1,224)=47.396,  $p < .001$ ]. 구체적으로 보면, 결정성차원 ( $\beta = .418$ ,  $p < .001$ )분산의 17.5%를 설명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현실성요인에서도 유의한 분산을 예측하였다[F(1,224)=30.870,  $p < .001$ ]. 구체적으로 보면, 현실성 ( $\beta = .348$ ,  $p < .001$ )분산의 12.1%를 설명됨을 알 수 있다. 독립성 에서는 [F(1,224)=.5.459,  $p < .05$ ]유의한 분산을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독립성 ( $\beta = .154$ ,  $p < .05$ )분산의 2.4%를 설명하고 있다. 준비성 에서는[F(1,224)=6.348,  $p < .05$ ]유의한 분산을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준비성( $\beta = .166$ ,  $p < .05$ )분산의 2.8%를 설명하고 있다. 확신성 에서는[F(1,224)=3.729,  $p < .05$ ]유의한 분산을 예측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확신성( $\beta = .128$ ,  $p < .05$ )분산의 1.6%를 설명하고 있다. 즉, 불확실성에대한 인내력부족은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태도를 크게 높이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 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자기효능감

이 연구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변인은 자기효능감 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에서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감, 과제난이도에서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성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약화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은경(2000)의 연구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불안 간에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 및 그 외 Burns(1980)의 연구에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약화된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 이 연구를 지지해주고 있다.

또한, Dugas, Hedayati, Karavidas, Buhr, Francis & Phillip(2005), MacLeod & Rutherford(2004)의 연구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에는 부정적인 사건이 자주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측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못건뎠다 하며 모호한 상황을 더욱 위협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반응과 걱정,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적 반응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충원, 김효창(2006)의 연구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황을 애초부터 만들지 않으려는 경향이 불확실성 상황 자체를 완전히 거부해 버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냈으며, 박영미(2004)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낮고, 보다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며 뛰어난 자기조절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주어진 과제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Schunk, 1983), 고난과 어려움을 오래 견디고(Bandura & Schunk, 1981; Schunk, 1982), 낮은 불안수준을 나타내고, (Pintrich & De Groot, 1990),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기에 이러한 연구들이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렇듯이 무용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어려서부터 비교적 빨리 진로와 전공이 정해지고 그것을 유지하고 상급 학교진학과 연계를 위해 전공분야 실기위주 수업을 많이 하는 편이다. 하지만 대학입시를 마치고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무용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실기위주의 수업으로 인한 전공이 아닌

기타 다른 분야의 수업의 관심과 참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지속적으로 무용과 관련된 공부와 훈련 및 그것과 연계된 미래를 설계하려한다. 그중 제일 선호도가 높은 진로의 미래는 직업무용단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에 직업무용단의 수는 많지 않다. 한 해에 대학교에서 졸업하는 졸업생에 비해 무용단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그 수요가 너무 적은 관계로 미래에 대한 설계에 있어 대학 졸업 시기가 다가오면,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듯 무용수로서의 삶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나 적은수의 무용단뿐만 아니라 무용수들의 신체조건으로 인한 무용수들의 자신감 결여는 불확실한 미래에 더욱더 많은 심적 부담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무용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불안한 마음을 야기 시키며 이러한 것들이 현실과 마주쳤을 때는 피하고 싶은 마음과 지금까지 노력해온 무용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할 수도 있다. 어려서부터 하나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유지하면서 기대와 꿈은 컸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은 무용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결여와 무용수행을 하는 것에 대한 의욕상실과 흥미침체로 인해 자기조절능력 약화와 과제난이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버려내는 힘이 약할수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신의 목표를 세우기보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피하려는 근시안적인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자신감 결여와 자기조절과 과제난이도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 나.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태도

이 연구는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태도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기효능감 요인 중 자기조절 효능감은 진로결정태도 요인 중 독립성과 준비성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감요인은 진로결정태도 요인 중 결정성 차원과 현실성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실성에서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난이도 요인은 진로결정태도 요인 중

현실성과 독립성요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 행동과 행동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된다.

선행연구인 Hackett와 Betz(1981)는 자기효능감 기대가 진로결정과 진로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고, Taylor와 Betz(1983)는 진로의사 결정에 관한 자기효능감 지수가 진로미결정 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강정찬(1996)과 강영숙(2002)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와 중·고교생의 진로성숙과 진로포부의 관계변인을 연구한 결과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 및 진로포부의 유의한 상관성을 보고하였으며, 장범식, 최영래, 이재희(2010)의 연구 결과에서도 체육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의식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이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또한, 김경욱(2009)의 연구결과는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과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선중(2005), 김수리(2004), 이명숙(2003)의 연구에서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불안하다고 해서 모두가 진로미결정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작용하게 될 때, 심리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완충역할을 하게 되면서 불안한 가운데에도 진로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문승대(2003)와 박수길(2001)의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여대생의 자기결정성 수준과 진로결정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밝힌 한주옥(2004)의 연구와도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선행연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무용이라는 특수한 상황인 실기를 위주로 하는 예술 전공자를 통하여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무용전공 학생들의 대부분 미래, 진로에 대한 우선순위는 직업 무용수로서의 미래를 꿈꾸는 것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은 미래를 설계 해 나갈 때 많은 역할과 영향을 미치지만, 무용수로서 미래 설계에서는 자

신감 뿐 만이 아닌 신체적인 요소인 무용수행 연습 등의 많은 요소들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감만으로는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조절능력 향상은 진로결정 준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생겼을 때에는 많은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 생각된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때 남들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의 유능감을 드러내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므로 그에 따른 진로준비행동도 더 많이 하게 되고 확고한 진로결정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진로에 대한 선택과정에서 구직활동의 구체적 행동에 이르기 까지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의 내적 동기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변수임을 입증하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 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결정태도

이 연구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결정태도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변인은 진로결정태도 요인인 결정성차원, 현실성, 독립성, 준비성, 확신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인 홍혜영, 안혜선(2009)의 연구결과에서 불안은 진로결정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에 대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이 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

또한 OHare와 Tamburri(1986)의 연구는 불안과 진로결정에 대한 대처행동의 역할 고찰을 통해 불안과 진로결정에 의미 있는 관계를 발견했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불안이 만성적인 미결정자들을 확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Fuqua & Hartman, 1983), 불안은 진로결정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송경수, 2003)는 결과와 부분 일치한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삶의 많은 측면에서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수반하기에 일반적 학생들은 자아 성취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진로 결정은 하지도

못 한 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불안 해 하면서 인내력 부족까지 나타나는 현상을 대부분 보이게 된다. 하지만 무용전공 학생들은 비전공 학생들에 비해서 좀 더 이른 시기에 진로나 전공이 결정되어 수행 해 온 과정 속에서, 다가올 미래의 삶이나 진로에 연계된 학습과 훈련의 반복을 통해서 습득된 심리적 안정감은 큰 무기가 되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극복은 비전공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좀 더 수월 할 수 있으리라 보여 진다.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전문 교육을 받기 때문에 부모님과 지도자의 많은 보살핌과 영향을 받으며, 미래를 준비할 때도 부모님이나 지도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또한, 미래가 불확실할 때에는 더욱더 부모나 지도자에게 의지하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모호함은 진로를 결정 하는 차원에서 불안과 걱정, 두려움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며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심적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처럼 미래의 진로를 결정할 때 미래를 알지 못하고 불안한 상황일수록 많은 준비를 요하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삶의 많은 부분이 모호함을 수반하는 동시에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에 어떤 안정성을 부여하고 적응하고자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 2. 결 론

본 연구는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미래에 관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이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미래의 진로에 지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변인은 자기효능감 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에서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감, 과제난이도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효능감 요인 중 자기조절 효능감은 진로결정태도 요인 중 독립성과 준비성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감요인은 진로결정태도 요인 중 결정성 차원과 현실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실성에

서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난이도 요인은 진로결정태도 요인 중 현실성과 독립성요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불확실성에대한 인내력 부족 변인은 진로결정태도요인 결정성차원, 현실성, 독립성, 준비성, 확신성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강경찬(1996). 한국 중·고교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포부 관련변인 탐색,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강영숙(2002).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진로자아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주(2009). 무용전공대학생의 진로의식과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 58, 19-39.

김선중(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수리(2004).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역기능적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아영(1997). 자기효능감 및 하위척도들의 학교별 성별 평균 및 표준편차,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김영희(2007). 무용전공 대학생의 무용성취수준이 무용학업적응과 진로결정태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은경(2000). 여고생의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불안과의 관계,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영(2001). 한국대학생 진로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은주(2007). 무용전공을 희망하는 중,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요인의 관계. 『대한무용학회』 52, 49-68.

나희진(2005). 무용전공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연구, 단국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승태(2003).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과 심리적변인 간의 인과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수길(2001).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영미(2004). 아동의 모애착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신 · 김의철 · 김영희 · 민병기(1999).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5(1), 57-76.

박종길(2006). 무용과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한국스포츠 심리학회』 17(3), 47-60.

박종길 · 김계숙(2003). 무용교사의 직업사회화 과정. 『한국체육학회지』 42(6), 661-670.

손은령(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경수(2003). 대학생들의 불안,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경림(2005). 부모의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걱정 및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명숙(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각 ·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분석,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창섭 · 채지훈 · 이명휘(2006). 무용전공 여대생의 중도탈락 원인과 중도탈락 이후의 적응과정. 『한국스포츠사회학회』 12(1), 185-200.

이충원 · 김효창(2006). 체면민감성, 자아존중감, 사회적 불안이 불확실성 회피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20(3), 17-30.

장경아(2003). 무용전공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유형화가 진로결정태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범식 · 최영래 · 이재희(2010). 체육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의식성숙 및

-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0, 57-67.
- 정미영(2009). 삶의 의미 발견 과정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11, 203-228.
- 차정은(1997).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경(1997). 만성적 근심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역기능적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선숙(2009). 대학 무용전공자의 진로문제와 진로성숙의 관계. 『예술교육연구』 7(2), 25-36.
- 한종철 · 이기학(1997). 고등학생의 성별 및 계열별에 따른 진로내도 성숙정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9(1), 335-349.
- 한주옥(2004). 여대생의 자기결정성 수준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혜영 · 안혜선(2009). 고등학생의 완벽주의, 불안과 진로미결정간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16(9), 149-175.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 Bandura, A. & Schunk, D. H.(1981). Cultivation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586-598.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November, 34-51.
- Challagalla, G. N. & Shervani, T. A.(1996). Dimensions and types of supervisory control : Effect on salesperson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Journal of Marketing*, 60(1), 89-105.
- Chartrand, J. M., & Camp, C. C. (1991). Advances in the measurement career development constructs: a 20-year review.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9, 1-19.

- Dugas, M. J., Buhr K., & Ladouceur, R. (2004). The role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in etiology and maintenance. In R. G. Heimberg, C. L. Turk, & D. S. Mennin (Eds.),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dvances in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Guilford. 143-163.
- Dugas, M. J., Gosselin, P., & Ladouceur, R. (2001).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worry: Investigating narrow specificity in a nonclinical sampl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 551-558.
- Dugas, M. J., Hedayati, M., Karavidas, A., Buhr, K., Francis, K., & Phillip, N. A. (2005).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information processing: Evidence of biased recall and interpretation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9, 57-70.
- Freeston, M. H., Rheaume, J., Letare, H., Dugas, M. J., Ladouceur, R. (1994). Why do people wor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 791-802.
- Fuqua, D. R., & Hartman, B. W. (1983). Differenti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2(1), 27-29.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Lachance, S., Ladouceur, R., & Dugas, M. J. (1999). Elements explaining the tendency to worry.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8, 187-196.
- MacLeod, C., & Rutherford, E. (2004). Information-processing approach: Assessing the selective functioning of attention, interpretation, and retrieval. In R. G. Heimberg, C. L., Turk & D. S. Mennin(Eds.),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dvances in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Guilford Press.
- Mischel, M. H. (1988). Uncertainty in illness. *Imag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0, 225-232.
- O'Hare, M. M., & Tamburri, E. (1986). Coping as moderator of the relation between anxie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255-264.
- Pintrich, P. R., & De Groot, E. V. (1990).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33-40.

Schunk, D. H.(1982). Effects of effort attributional feedback children's perceived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5, 548-556.

Schunk, D. H.(1983). Ability versus effort attributional feedback : Differential effects of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5, 848-856.

Taylor, K. M. & Betz, N. E.(1983). Application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Wanberg, C. R., & Muchinsky, P. M. (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71-80.

논문투고일	2010년	6월	30일
심사일		7월	2일
심사완료일		7월	30일

## Abstract

# The Effect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Self-efficacy and Attitude of Career Decision Making in College Dance Student

Young-Ran You  
Dankook University

This study is intended to identify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intolerance of uncertainty on attitude of career decision making in college dance student. The subject of the study is 226 students in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do, and all questions were made up, with a survey as a measurement tool, on the basis of precedent study and theories conforming to purpose of the study. Data were processed, with use of SPSS WIN Ver.14.0, through simple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the effect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on self-efficacy and attitude of career decision making. As a result, it indicates that all about self-efficacy and attitude of career decision making were affected. To identify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attitude of career decision making, multiple-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As a result, it demonstrates that self-efficacy positively affected independence and preparedness in factors of attitude of career decision making, and confidence negatively affected decisive dimension and practicality, and level of difficulty negatively affected practicality and independence in the factors of attitude of career decision making.

**keywords:** intolerance of uncertainty(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 self-efficacy(자기효능감), attitude of career decision making(진로결정태도), simple regression analysis(단순회귀분석), multiple-regression analysis(다중회귀분석)

www.kci.go.kr